

激 勵 辭

2015. 9. 10(목) 17:30~20:30
KB연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I.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딱딱한 도심의 행사장을 벗어나
호젓한 이곳 연수원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더욱 가깝고 정답게 느껴집니다.

먼저 「핀테크 1박 2일」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만큼
격려사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I. 「핀테크 1박2일」 - 행사의 의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핀테크 육성은 금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육성이라는 과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과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에서도 **핀테크**라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핀테크 지원센터의 데모테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공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성공사례의 출현은 핀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의 **저변을 확충**하여,
앞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제휴의 경험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체득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는 것은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그 어떠한 조언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딱딱한 업무 이야기만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핀테크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무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화합의 장(場)이며,

핀테크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를 좀 더 알고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나누기 어려웠던 허심탄회한 얘기들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